

융의 원형과 집단무의식이 중년의 위기 극복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기초 연구

배나래^{1*}, 임진섭²

¹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립안동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The Role of Jungian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in Addressing the Midlife Crisis

Na-Rae Bae^{1*}, Jin-Seop Lim²

¹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²Dept. of Child and Social Welfa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중년 위기를 융의 원형(Archetypes)과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관점에서 이해하고, 심리적 변화를 탐색하며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적 기초 연구이다. 중년의 위기는 단순한 혼란의 시기가 아닌, 개별화(Individuation)와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향한 중요한 여정으로 간주한다. 융의 원형이 중년기에 어떻게 나타나며, 중년기 시기에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집단무의식이 중년의 위기 동안 개인의 경험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사회복지실천가나 중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내담자의 중년 위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 및 교육에 있어 융 심리학의 통합적 접근이 중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지원 하는 데 의미있는 이론적 기초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 중년기위기, 집단무의식, 원형, 개별화, 사회복지실천

Abstract This study is a theoretically based study that understands the midlif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Jung's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explores psychological changes, and suggests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social welfare practice. The midlife crisis is not simply a period of confusion, but is viewed as an important journey toward individualization and self-actualization. We seek to understand how Jung's archetypes appear in middle age and what meaning they have for the psychological changes that occur during adulthood. In addition, it explains the impact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on an individual's experience and behavior during a midlife crisis, and provides theoretical basic research to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studying midlife to help clients overcome the midlife crisis more positively. I want to do it. The purpose is to suggest that the integrated approach of Jungian psychology i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education can play a role as meaningful theoretical basic research in effectively supporting the midlife crisis

Key Words : Midlife Crisis, Jungian Archetypes, Collective Unconscious, Individuation, Social Welfare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victory0302@hanmail.net)

Received March 20,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April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중년의 위기는 인간 생활주기의 중추적인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리학자, 사회학자, 문화 이론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으로 40세~60세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되는 중년은 개인이 종종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겪는 삶의 중요한 단계이다[1]. 중년은 인생의 성취에 대한 재평가, 자신의 목적에 대한 의문, 죽음과의 대결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신의 의미를 찾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는 신중한 자아 탐색과 본질의 이해를 요구한다.

중년의 위기는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뿌리 깊은 심리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인 생애주기의 중요한 시점인 중년기에 젊음의 외적 성취가 빛을 잃기 시작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중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이해를 추구하며 내면으로 향하는 시기이며[3] 이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전반에 걸쳐 인식되어 온 더 광범위하고 전형적인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4].

중년의 위기를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 칼 융(Carl Jung)은 가장 영향력 있고 통찰력이 있는 학자로 단연 돋보인다[5].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및 다니엘 레빈슨(Daniel Levinson)과 같은 다른 학자들도 삶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공헌을 했지만[6], 중년 동안 진행되는 더 깊은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심오한 틀을 제공하는 것은 원형과 집단무의식에 대한 융의 이론이라 하겠다.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중년기 동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힘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고 있다[7].

다니엘 레빈슨(Daniel Levinson)은 삶의 재평가와 재구성을 설명하지만 융(Jung)이 언급한 근본적인 심리적 역학을 완전히 탐구하지는 않고 있다[8].

중년의 위기에 대한 융(Jung)의 탐구는 이 시기를 집단무의식을 더 깊고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는 중년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 변화나 삶의 역할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동안 무시되거나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측면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심오한 심리적 변화라고 주장했다[9].

본 연구는 칼 융(Carl Jung)의 원형 이론과 집단무의식을 통해 중년의 위기 동안 펼쳐지는 복잡한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년의 위기가 어떻게 인간 생활주기의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해결되지 않은 실존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평가하게 된다.

중년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실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년은 혼란의 시기이지만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중년의 복잡한 위기의 문제, 실존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본론

2.1 중년 위기에서 원형의 역할

융의 원형은 집단무의식에 존재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상징이자 모티브이며, 문화와 시대에 걸쳐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형성한다[10]. 중년의 위기 동안 이러한 원형은 종종 더 큰 강도로 나타나 심리적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는 중년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그림자는 개인이 평생 동안 거부하거나 무시했을 수 있는 성격의 더 어둡고 종종 억압된 측면을 나타낸다. 중년기에 개인이 젊음의 한계에 직면하고 죽음과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나타나 인정과 통합을 요구한다[9]. 중년의 위기 동안 그림자의 출현은 불안, 우울증 또는 실존적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거부했던 부분, 즉 이기심, 공격성, 취약성과 같은 특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10]. 이러한 측면을 의식적 인식에 통합함으로써 개인은 더 큰 자기 이해와 심리적 균형을 얻을 수 있다[12].

융이 이해한 중년의 위기는 모든 개인이 온전함을 달성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심리적 변화의 원형이다[13]. 중년기 위기는 집단무의식에 깊숙이 박혀 있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그림자(Shadow: 개인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정적인 성향이나 본능적인 부분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욕망, 행동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자아와 반대되는 측면)와의 대결과 아니마(Anima: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면), 아니무스(Animus;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인 자아실현을 향한 필수 단계라 설명하고 있다[14].

융이 집단무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단 무의식은 중년기 위기 시기에 표면화되는 더 깊고 무의식적인 동기와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15].

융이 설명했듯이 집단무의식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인 상징과 패턴인 원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형은 특히 중년의 위기와 같은 중요한 인생 전환기 동안 우리의 경험, 꿈 및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이다[16].

집단무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은 중년기 경험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17]. 예를 들어, 이 시기의 꿈은 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내적 투쟁을 반영하여 더욱 생생하고 전형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징을 이해하고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적 인식으로 통합하면 개인은 중년의 위기를 더 명확하고 목적 있게 헤쳐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18].

중년의 외부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융은 내부적, 심리적 여정에 대한 강조는 이 중요한 인생 단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융의 연구는 중년의 위기를 표면 너머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주도하는 더 깊은, 종종 무의식적인 힘을 연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9].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 인식과 목적을 갖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감정, 공감, 양육 특성에 더 많이 접촉하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성과 관련된 특성인 자기 주장, 독립성, 합리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개인이 엄격한 성 역할을 초월하고 더욱 균형 잡히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심리적 전체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나타내는 전체성의 원형이다[20]. 중년의 위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고 성격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중년기의 자아 출현은 의미, 영적 성취,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와 연결하려는 열망에 대한 깊은 갈망이 특징이다[21]. 이 원형은 개인을 자아실현으로 몰아가며, 정신의 상층되는 측면을 조화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년의 위기와 이러한 원형의 출현은 사회적 기대와 규범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9]. 개인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직업적 성공,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은퇴 준비 등 특정한 역할과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17]. 그러나 이러한 외부 기대는 중년기에 발생하는 내부 심리적 요구와 충돌하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원형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사회적 역할과 더 깊은 심리적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여 이러한 갈등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2.2. 집단무의식의 영향

융의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구조이며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보편적인 기억, 상징, 원형 등을 포함한다[22].

2.2.1. 상징주의와 패턴

중년의 집단무의식에서 발생하는 상징과 패턴은 의미가 높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개인은 무의식 속으로의 하강과 그림자와의 대결을 상징하는 어두운 숲을 통과하는 여행을 꿈꿀 수 있다[20]. 이러한 상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장, 투쟁, 변화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반영한다.

2.2.2.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년의 집단무의식의 영향은 내부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행동에도 확장된다. 개인은 전형적인 주제에 공감하는 활동, 관계 또는 관심사에 끌릴 수 있다[21]. 예를 들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더 깊고 보편적인 진실과 연결되는 방법으로 영성, 신화 또는 예술적 표현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집단무의식 내에서 활성화되는 원형 패턴과 일치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점에서 중년의 집단무의식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로 이끄는 데 중요할 수 있다[22]. 사회복지사와 치료사는 개인이 집단무의식에서 나

오는 상징과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의미 있고 변혁적인 중년의 경험을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23]. 전문가들은 중년 위기의 보편적인 측면을 인식함으로써 표면적 수준의 대처 전략을 넘어서 중년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더 깊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지원하고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2.2.3. 개성화 과정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는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여 전체성과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25]. 중년의 위기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에 맞서고, 내부 갈등을 조정하며, 더 큰 심리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요받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26]. 따라서 개성화는 자기 지식, 진정성, 영적 깨달음을 향한 철학적 여정으로 나타난다[15].

철학적으로 중년의 위기 동안의 개성화 과정은 자아 실현과 실존적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17].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의미는 집단무의식의 원형에 구현된 더 크고 보편적인 존재 측면과 연결하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다[28]. 집단무의식은 내부적, 심리적 여정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외부 요인과 사회적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19].

2.2.4. 무의식과의 대결

중년의 위기는 개인이 무의식 속에 묻혀 있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결은 거부되거나 억압되었던 자아의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개성화에 필수적이다[10]. 이러한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개인은 보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얻을 수 있다. 중년기의 개성화 과정은 개인의 가치관, 신념, 목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평가로 특징지어진다[13]. 이는 개인이 평생 동안 채택한 역할과 정체성을 넘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

2.2.5. 전체성을 향한 여정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성, 즉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어 개인이 완전히 자기 실현되는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다. 도전과 격변을 동반하는 중년의 위기는 중

요한 단계이다[16]. 이는 개인이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고, 보다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전함을 향한 이 여정은 종종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하고 중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5]. 그러나 이는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개인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3. 결론

원형과 집단무의식의 시각을 통해 중년의 위기에 대한 융(Jung)의 이해는 중년의 중요한 삶의 단계에 대한 실존을 이해하고 자아성장을 위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융(Jung)의 이론은 중년기를 단순히 외적 전환이나 역할 조정의 시기로 보는 표면적 해석을 넘어, 중년기 시기 동안 일어나는 복잡하고 생경한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제공하였다. 인간의 개성화의 내면적 여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융(Jung)의 접근 방식은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격변의 시기가 아니라 심리적 온전함, 실존 이해의 중요함, 자아 실현 및 영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3.1 사회복지실천적 시사점

사회복지전문가,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실천현장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융(Jung)의 원형 개념과 집단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중년의 위기는 종종 개인이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생각, 행동 및 감정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신의 깊이 묻혀 있는 측면(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과 접촉하게 만든다. 첫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융의 개념 통합이다. 사회복지전문가와 내담자가 중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융의 개념을 치료 실무에 통합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꿈, 환상, 감정적 반응을 탐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그들이 전형적인 패턴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은 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이러한 무의식적 측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보다 통합되고 균형 잡힌 자아로 이끈다.

둘째, 개별화 촉진이다.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개인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위기가 실패나 부적절함의 징후가 아니라 심리적 발달의 자연스럽고 필요한 단계임을 개인이 이해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상상력, 꿈 분석, 개인 및 문화적 상징 탐색과 같은 다양한 치료 기술을 통해 실무자는 내담자가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내용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문화적 민감성과 원형적 인식이다. 원형은 보편적이지만 문화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가는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업무에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전형적인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 이해하면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문화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은 개입이 내담자의 배경을 존중하고 내담자와의 위기상황을 보다 의미 있는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3.2. 학술적 시사점

중년의 위기 상황에서 용의 원형과 집단무의식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특히 심리학, 사회사업, 문화 연구 분야에서 미래 연구를 위한 여러 길을 열어준다. 첫째, 다학제적 문화 연구이다. 향후 연구는 용의 원형의 구조적 틀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 탐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다학제적 학문간 비교 연구는 문화적 차이가 원형의 표현과 개별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치료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화에 관한 중단적 연구이다. 용의 원형에 대한 참여가 장기적인 심리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중년의 위기와 그 이후의 개인을 추적하는 중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정신 건강과 정서적 복지 증진에 있어서 개성화와 무의식 통합의 이점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에 용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용의 심리학을 사회복지실천 및 사례관리에 통합하고 적용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결과에 따른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하는지 연구하여 실제 교육과정이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미래의 사회복지전문가가 중년의 복잡한 심리적

전환을 통해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상담 심리 치료적 시사점

중년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면 개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는 위기를 단순한 쇠퇴나 혼란의 기간이 아닌 심오한 개인 성장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 및 상담심리전문가는 첫째, 자기 성찰 촉진이다. 내담자가 현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 자기 성찰과 성찰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일기 쓰기, 명상, 치료와 같은 기술은 정신의 더 깊은 층에 접근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 구축 지원이다. 개인이 중년의 위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지원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용의 원형 개념을 중심으로 한 그룹 치료 세션, 워크숍 또는 토론 그룹은 연대감과 목적 공유를 제공하여 고립감과 절망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평생 학습 및 창의성 옹호이다. 내담자 자신의 새로운 자아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경험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취미 탐구, 추가 교육 추구 또는 예술적 표현 참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중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에너지의 배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용의 원형 개념과 집단무의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년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더 깊은 심리적 과정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이 이 잠재적인 혼란의 시기를 더 큰 자기 이해, 진정성 및 성취를 향한 여정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용의 원형과 집단무의식이 사회복지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C. A. Park.(2016). The problem of depression of the middle - aged people and the method to cope with it - centered around the theory of C. G. Jung -. *Journal of the Korean Practical Theology Society*, 49, 593-544.
DOI : 10.14387/jkpsph.2016.49.533
- [2] H. H. Shin. (2018.2.25.). *Shaking middle age, is it*

- a common phenomenon in all countries?* Hankyoreh.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3543.html
- [3] M. C. Kim. (1989). *A Study on Midlife Crisis and Related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4] W. J. Byeon & C. K. Kim. (2007). Effects of Depression, The sense of crisis, Self-differentiation, Social Support, Internal Family Systems on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2(3), 2550276. DOI : 10.18205/kpa.2007.12.3.001
- [5] N. R. Bae. (2022). Exploring COVID-19 and Meaning in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4), 315-320. DOI : <https://doi.org/10.15207/>
- [6] Y. M. Jung. (2011). Factors Influencing Meaning in Life among the Middle-aged.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3(3), 209-220. UCI : G704-000678.2011.23.3.007
- [7] H. K. Chang & J. N. Sohn. (2017). Factors related to Meaning of life in middle adults. *Multimedia Journal of Convergence of Arts, Humanities and Society*, 7(7), 609-621. DOI : 10.35873/ajmahs.2017.7.7.057
- [8] A. S. Kim & J. Yoon. (1993). The Timing and the Effects of Social-Economic Variables on Mid-Life Crisis. *Korean Gerontology*, 13(1), 1-16.
- [9] K. F. Riegel. (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1(10), 689-700.
- [10] D. J. Levinson et al. (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 Knopf.
- [11] R. L. Gould. (1972). The phases of adult life : A study in development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9, 521-531.
- [12] R. L. Gould. (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 Simon & Schuster.
- [13] G. Vaillant.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 Little Brown.
- [14] Carl Jung. (1988).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 New York World.
- [15] E. M. Kim & H. S. Lee.(2021). Midlife Crisis Analysis of Characters in the Movie "The Perfect Other" - Focusing on Carl Jung's Analytical Psychology. *Culture and Convergence*, 43(6), 343-371. DOI : 10.33645/cnc.2021.06.43.6.343
- [16] R. L. Havighurst.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David Mckay.
- [17] E. H.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h and Co.
- [18] B. L. Neugarten, (1979). Time, Age, and the Life Cycl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6), 887-894.
- [19] J. E. Kim. (1983). *The Psychology of the Korean family*.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 [20] J. S. Kim, J. G. Nam, J.W.Jung & Y. H. Lee. (1982). A Study on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Korea. *Research Papers*, 82, 173-193.
- [21] H. W. Ahn & E. S. Joo.(2021). The Effect of Focusing Manner on Mid-Life Crisis in Middle-Aged Men. *Exchange Analysis Counseling Research*, 11(1), 93-116. DOI : 10.35476/taca.2021.11
- [22] E. Y. Lee & E. J. Wang.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Mid-life Crisi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2), 481-503.
- [23] V. E. Frankl.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MA:Beacon Press.

배 나 래(Na-Rae Bae)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가족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21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복지융합
- E-Mail : victory0302@kycu.ac.kr

임 진 섭(Jin-Seop Lim)

[정회원]



- 2005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1월 9월 ~ 2023년 02월 :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 2023년 3월-현재 : 국립안동대 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
- E-Mail : jslim719@anu.ac.kr.